



안내 : (02)2000-2114 제18683호 11판

10조 잭팟... '캐즘' 돌파한 K배터리

뉴스 & 분석

삼성SDI가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에 처음으로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한다. 전기차 '캐즘(chasm·수요 절벽)'에 부딪혔던 한국 배터리 업계가 스스로 돌파구를 찾는 계기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삼성SDI는 20일 벤츠의 차세대 전기차에 들어갈 '고성능 각형 하이니켈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향후 5년 안팎에 걸쳐 9조~

삼성SDI, 벤츠에 전기차 배터리 공급...獨3사 모두 고객사로 높은 중의존도에 글로벌 공급처 다변화...韓 기업에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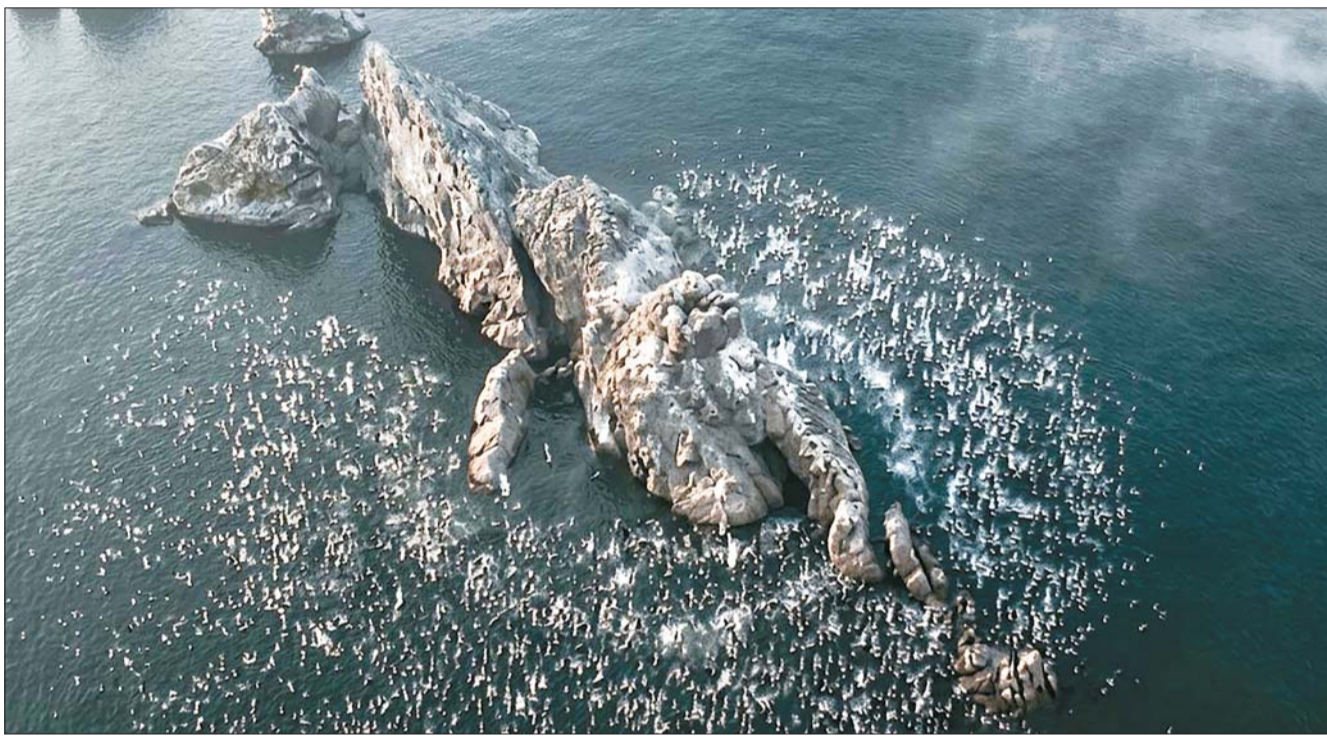
10조원 규모로 제품을 보급할 것으로 추산했다. 중국 업체가 따라오기 어려운 고부가가치 배터리 제품을 만들고 데이터센터 덕분에 수요가 증가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을 선점하는 '두트랙 전략'이 빛을 보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CATL, BYD 등 중국산 배터리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을 경계하면서 한국으로 공급처 다변화에 나선 점도 호재다. 방한 중인 올라 칼레니

우스 벤츠 회장은 이날 "배터리는 모델 전체에 들어가기 때문에 글로벌 공급업체와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면서 "한국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더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SDI는 이날 계약을 통해 BMW와 아우디에 이어 벤츠까지 독일 '빅3' 브랜드를 모두 고객사로 확보하게 됐다. 벤츠는 특히 안정성이 높아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공급도 삼성SDI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칼레니우스 회장과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회동하며 모바일 협력 방안을 검토한 후 5개월 만에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된 셈이다.

LG에너지솔루션도 장기 일감을 확보했다. 업계에 따르면 리튬인산철(LFP)부터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에 이르기까지 LG에너지솔루션이 벤츠에 공급하는 물량은 25조원어치에 달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차세대 리튬·망간리치(LMR) 배터리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다. SK은 역시 첨단 배터리 핵심 '파우치 셀투팩(CTP)'을 2027년부터 상업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김정환·한지연 기자

무인도 초토화시킨 '악마의 무기' 北집속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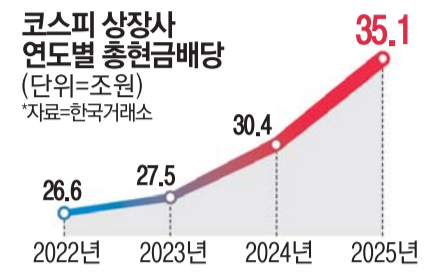
북한이 지난 19일 집속탄두와 파편지뢰탄두를 장착한 '화성-11라' 전술 탄도미사일 위력 평가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왼쪽 사진은 함경북도 화대군 앞바다의 무인도 상공에서 미사일 탄두로부터 분리된 자탄(子彈) 수백 개가 표적 지역을 모의 공격한 상황. 오른쪽 사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딸 주애(앞줄 오른쪽)가 화면을 통해 미사일 발사 결과를 지켜보는 모습. 관련기사 A6면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배당 꽃 피는 코스피 작년 35조 사상 최대

반도체 이익·분리과세 영향
보통주 시가배당률 2.63%
국고채 상승률 훌쩍 넘어서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가 주주에게 지급한 배당금이 35조원을 넘어 한국 증시 역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표 기업 이익이 크게 늘어난 데다 정부가 유독한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이 더해진 덕분이다. 코스닥 기업까지 합하면 주주에게 지급된 배당금은 39조원에 달해 한 해 국민연금 지급액 49조7000억원 대비 80%에 육박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주들이 국내 상장사에서 받은 배당소득이 연금소득과 맞먹는 중요 소득원이 된 것이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12월 결산법인) 566곳이 배당한 금액은 전년보다 15.5% 늘어난 35조1000억원에 달했다. 상장사 799곳 가운데 71%가 현금 배당을 실시한 셈이다. 배당금 증가율은 2023년 2.2%, 2024년 10%에 비해

급격히 높아졌다. 지난해 코스피 법인의 배당성향은 39.83%로 2024년보다 5.09%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에서 배당을 실시한 기업의 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32.9%에 이른다. 이처럼 주가가 급등했음에도 시가배당률은 보통주 기준 2.63%를 기록하며 국고채 1년물 금리(2.43%)를 추월했다.

우선주 시가배당률은 3.06%에 달했다.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과 더불어 안정적인 배당수익까지 얻을 수 있었던 셈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코스피 상장사의 81%가 5년 이상 배당을 이어오고 있다"며 "다수 상장사가 안정적인 배당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김세림 기자

현대차, 美에 호소 "관세 이중부과 말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각국에서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받은 가운데 현대차그룹이 301조 관세와 품목관세(232조)를 중복해서 적용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의견서를 별도로 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도 의견서를 내고 현대차그룹이 지난 40년간 미국에서 창출한 일자리가 57만개에 달한다며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강조했다.



옛GPT

앞서 미국은 한국을 비롯해 16개국을 대상으로 '과잉생산' 여부를 조사해왔다.

'무역법 301조' 조사 美 USTR에 의견서 "현대, 美서 40년간 고용 57만개 창출" 자동차協, 지원사격

엠바고

MK TECH REVIEW B1~8면

[미등기 해제세대 회수 자산 최종 매각 공고]

광고 제 26-0820호

본 공고는 법인 자산의 효율적 운용 및 세제 최적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및 [주택수 미포함] 전략 자산 매각 건입니다. 본 공고는 마케팅 없이 실수요자 및 법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진행됩니다.

1) 매각 자산의 개요.

- 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우성아파트 사거리
- 성격: GBD중심 업무지구 내 하이엔드 랜드마크(준공 완료)
- 용도: 외빈 의전실 및 법인 자산 보유용, 법인 임원 사택
- 현황: 회사 보유분 및 미배정 로열 세대 최종 한정 공급

2) 법인 취득 시 실무적 장점.

- 세제 혜택: 법인 취득세 중과 배제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
- 자산 보안: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 제출 의무 없음(자금 노출 최소화)
- 재무 이익: 공사비 폭등 전 분양가로 취득하여 법인 자산 가치 방어
- 인도 신속성: 실물 확인 후 즉시 점유 및 소유권 이전 가능

■ 배정 일정 및 접수 방법.

- 공고일자: 2026년 4월 21일
-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선착순 호실 지정 및 계약 체결 시까지
- 방문예약: 원활한 상담을 위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평일 및 공휴일)

3) 자산 가치 및 특징점.

- 강남역(2호선·신분당선) 더블 역세권 및 강남대로 사거리 코너 입지의 독점성
- 인피니티 풀 / 미팅룸, 회의실 / 휘트니스, GX룸 / 조식, 발렛 서비스 운영 중
- 향후 신규 공급 대비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 확보
- LTV 최대 70~80% 활용 가능한 전략 자산

4) 배정 조건.

- 계약금: 분양가의 5%(정액제 가능)
- 특별 지원: 일부 호실 대상 파격적인 금융 지원 혜택 제공
- 특이 사항: 실물 호실 직접 확인 후 계약 체결 가능
- 비용 처리: 사택 운영을 통한 합리적인 법인세 절감 구조

[공고상의 유의사항]

준공 완료된 실물 자산을 직접 확인하신 후 배정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본 자산은 보안을 위해 온라인 상세 노출을 지양하며, 방문 순서에 따라 호실이 배정됩니다.

본 자산은 강남권 수급 불균형 속에서 확보된 희소 물량으로, 조기 마감에 예상되오니 신속한 현장 확인을 권고합니다.

※ 현장명과 시공사는 유선 확인 시 공개
2026년 4월 21일

문의 및 접수처 1544-0353

※ 본 광고는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제 매각 공고문입니다.